



농촌공 동진, 김제 독거노인 ‘농촌 집 고쳐주기’

무더운 날씨 속 주방 등 창호에 대한 주택 보수작업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8일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독거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재단법인 다문화가족지원재단이 협력해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수해 가구의 가구주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노후 및 파손된 창

호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으며, 이를 위해 공사 직원 약 30명이 투입되었다.

지사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창호에 대한 주택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자재 나르기, 폐기물 정리, 주변 환경정리를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2012년부터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농촌 취약계층 주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제=신주철 기자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독거 노인 주거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 직원 30여 명은 8일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독거 노인 가구를 찾아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단법인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협력해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혜 가구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 문제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으며, 지사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창호에 대한 주택 보수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정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9.1*8.0)cm

전라매일

2025 07 09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김제 금구면 독거노인 가구 대상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동진지사는 8일 김제시 금구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동진지사는 2012년부터 해당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번 활동의 수혜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홀로 생활하던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창호가 노후돼 단열과 안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진지사는 이에 따라 직원 약 30명을 현장에 투입해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창호 교체 및 주택 전반에 걸친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자재 운반과 폐기물 처리,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작업도 병행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힘썼다.

동진지사는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자나 차상위계층의 노후 주택을 보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하인호 동진지사장은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단순한 주택 수리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경환 기자

(17.0*7.8)cm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윤 강현규 ① 입력 2025-07-08 14:29 ① 수정 2025-07-08 14:29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8일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독거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재단법인 다솜복지재단이 협력해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수혜 가구의 가구주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노후 및 파손된 창호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으며, 이를 위해 공사 직원 약 30명이 참여했다.

지사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창호에 대한 주택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자재 나르기, 폐기물 정리, 주변 환경정리를 통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하인호 동진지사장은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독거노인 농촌집 고쳐주기 활동 전개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5.07.08 14:38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 직원 30여 명은 8일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독거 노인 가구를 찾아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 직원 30여 명은 8일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한 독거 노인 가구를 찾아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단법인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협력해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집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혜 가구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

제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으며, 지사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창호에 대한 주택 보수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정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인호 동진지사장은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조원영 기자